

미술심리상담사(2급) 작업일지

날 짜	2023년 6월 19일 (월요일)	회 기	6회기
주 제	알프레드 아들러(Alfred Adler)의 개인심리학과 자기 고찰	기록자	이우연
목 표	타인의 시선에 대한 객관화를 통해 '사회적 자아'를 찾고, 개인의 내면적 측면 및 개별적 특성을 발견함으로써 '개인적 자아'를 고찰하기.		
매 체	종이 가면, 물감 도구, 꾸미기 재료(비즈, 모루), 목공풀, 매직		
진행과정 (Process Recording)	<p>* 내가 보는 나, 남이 보는 나</p> <p>1.가면의 앞쪽에 남이 보는 나의 모습을 꾸민다. 2.가면의 안쪽에 내가보는 나의 모습을 꾸민다. 3.나에 대해 대변하는 시간을 갖는다.</p>		
활동 작품			
감상 및 평가	<p>*남이 보는 나 사람들에게 비추어지는 '사회적 자아'는 어떤 모습일까? 사회적인 역할과 외부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위해 개인이 형성하는 가장 외부적인 측면은 다소 방어적이고 한편으로는 상대방에게 열려있는 자아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노란색이나 핑크색의 화사한 색깔은 메인 색깔로 칠했습니다. 얼굴 아래 턱부분은 살색을 칠했는데 그 이유는 외형적인 모습에서 남들과 비슷하게 보이려는 측면이 있어서 살색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사회적인 얼굴도 하나가 아니고 다양한 얼굴이 있기 때문에 한 얼굴에 여러 가지 모습을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눈 주위를 미묘하게 다른 톤으로 칠하고 한 쪽 눈은 화장을 한 느낌의 속눈썹을 그려줌으로써 외부와 대면했을 때 좀 더 정장을 차려입은 듯한 정돈된 느낌의 나를 표현하였습니다.</p> <p>*내가 보는 나 47살에 나는 요시타케 신스케의 '이게 정말 나일까?'에서처럼 내 안에는 아기 때부터의 내가 모두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 좋아했던 상아색들이 나의 어린 시절이고 그 위에 크고 작은 보라색들은 성장하고 있는 나를 상징한다. 여러 개의 보라색의 덩어리는 아직도 하고 싶은 것이 많은 나의 크고 작은 욕구들입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연결되고 조화롭게 보이기 위해 톤들을 맞추었습니다. 눈 주위의 속눈썹들을 바깥에 있는 나의 모습과 비슷한 형태를 하고 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적 자아와 내면 안에 있는 자아도 공통점이 있고 서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 주위의 안과 밖을 비슷할 색깔과 모양으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p>		